

익산시, AI 신속대응 확산방지 총력

소규모 농가·전통시장서 산 닭 구입 농가 긴급 살처분·산 닭 유통 금지... 거점통제초소 2개소 운영

익산시는 제주도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 발생 원발지가 지역 인접시군인 군산시 서수면 종계농장으로 추정되고, AI 유행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최고 높은 수준의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북부시장과 삼례닭집에서 토종닭을 구입하여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시는 신속하게 5개 발생 소규모 농가 200여수를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곧바로 타 시·군 외부차량의 소독을 위해 목전동과 용동면에 거점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농장국은 현재 심각단계에서 AI가 종식될 때까지 관리지역(반경 500m이내)은 발생시 살처분 조치, 보호지역(3km이내) 3농가 4만4,000수

및 예찰지역(3-10km) 37농가 138만 9,000수는 소독 및 예찰 등을 실시하면서 소독차량 4대(축산과 2, 공방단 2)를 이용해 방역대와 함께 소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거점통제초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경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7일 읍면동장 긴급 AI 방역협의회 회를 개최하고, 100수 이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 295호/4,495수(토종닭 3,659수, 오골계 836수)에 대해 즉시 도태, 수매 및 살처분을 추진토록 주문했다. 또한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산 닭을 구입한 농가를 읍면동을 통해 현황 파악하고 긴급 살처분 하도록 지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7일 읍면동장 긴급 AI 방역협의회 회를 개최하고, 100수 이하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 295호/4,495수(토종닭 3,659수, 오골계 836수)에 대해 즉시 도태, 수매 및 살처분을 추진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AI는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골계, 토종닭에 의해 전파되고 있어 익산시는 북부시장 등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에서 산 닭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발전 민·학 협력 MOU 체결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익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원광대학교부설 지역발전연구소는 익산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민·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역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7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익산시 발전을 위한 민·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 추진됐으며,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지역 현안 발굴, 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 효율적인 지역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문·협력, 지역인재 양성, 현장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지역발전연구소 소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양 기관의 활동과 업적이 향후 민·학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인재 풀과 시민참여 자치기구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익산시 발전에 적합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경찰서, 금어기간 불법 포획 수산물 집중 단속활동

군산경찰서 수사과는 불법 어업성 수기를 맞이하여 무허가 스쿠버 다이빙 및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 수산물에 대한 육상 이적, 시중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군산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산해역에서 금어기간 지정된 품종은 전어, 대하 등 5품종으로, 무분별한 불법 포획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출·입항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다가를 꽃게 금어기간(6. 21~8. 20)을 대비하여, 불법 포획활동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경찰은 금번 금어기간 중 불법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복잡한 압수절차로 인한 수산물 폐사 등의 어족손실을 막기 위하여,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방류명령'에 의한 불법어획물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적극 해상 방류명령을 실시하여 어족자원을 보존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경찰서 김동병 서장은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금어기간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지역 토착성 불법조업 사범들에게는 엄정하게 법률의 잣대를 적용, 검거하여 군산지역 경제적 효과와 수산자원 증식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수송동, 1년 내 인구 6만 시대 도래

현재 5만4000명... 공동주택 대거 신축 원인

군산시 수송동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며, 곧 수송동 인구 6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송동은 수송동, 지곡동, 미장동 등 3개 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지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1년간 수송동으로의 총 전입자는 3만4,175명, 연평균 3,100명씩 증가했으며, 이는 11년간의 군산시 전체 증가 인구인 2,58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2005년 1만9,930명이었던 수송동 인구가 271% 증가한 것으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인구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수송택지개발과 더불어 공동주택이 대거 신축되면서 인구와 세대가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6월부터 입주 시작된 미장동 A아파트 500세대와 2018년 6월에 미장지구 B아파트 800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수송동의 인구는 1년 내 6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5만4,000명의 인구수를 가진 수송동은 군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운3동(3만6,000명)보다 1만 8,000명 가량 많고 전주시 효자동(7만4,000)에 이어 전북에서는 2번째로 인구 수가 많은 행정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인구 수를 살펴보면 고령화 추세인 읍면지역과 달리 40세 미만 인구가 3만1,243명으로 57.7%를 차지

하여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미장택지개발로 행정, 금융, 교육,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쾌적하고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들고 있어 꾸준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급속한 거주 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물류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새만금중소유통중심협동조합

군산시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새로운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8월 오식도동 814번지에 연면적 11,989㎡,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된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최근 4년 동안 수탁자를 찾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나 이번 위탁사업자의 선정을 통해 군산물류지원센터가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켜게 되었다.

시에서는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21일까지 위탁사업자를 모집 공고 후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를

새만금중소유통중심협동조합(대표 김승수)으로 선정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의 위탁사업을 맡게 될 새만금중소유통중심협동조합은 앞으로 새만금한중경제협력단지와 연계한 한중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상품 전시 및 수출대행 사업 추진과 함께 유통구조의 축소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구매, 공동물류로 가격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체 활성화로 고용창출, 선진 유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시·청각장애이용 TV 보급 신청 접수 30일까지

군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청각장애이용 TV 보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신청은 방송소의계층인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자막 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시·청각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저소득층 눈·귀 상이자이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자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의 1대 1 맞춤형 홍보와 자체적인 안내, 접수 등의 서비스를 통

해 수요자를 파악 중에 있다"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보급사업 자체를 몰랐거나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부진했던 보급사업이 탄력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소릉동에서 의료급여 순회교육

군산시가 의료급여를 바로 알리기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에 나선다.

시는 8일 소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할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된 의료급여제도 및 올바른 의료이용방법 ▲급여일수 산정방법 ▲의료급여 연장승인 ▲상

해요인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환금 ▲요양비 ▲임신출산지원비 등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을 통해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시에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